

○ 회원사 공장 품질관리 등급사정 안내 ○

업 체 명	사 정 등 급	사 정 번 호	사정상품명, 가공기술명 및 규격
이화전기공업(주)	1 등급	B마 1-622	무정전 전원장치 부동충전용 싸이리스트 정류장치
(주) 대 광 공 업	2을 등급	B타 2을-823	일단접지 변압기

◆ KOEMA 消息 ◆

'94 제 2차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 개발대상 과제 발굴

정부에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본적 취약요인이 되고 있는 기계류 · 부품 · 소재의 자립도를 높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인 기계류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92년부터 제 2차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UR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하에서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94년도를 기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기술개발에 획기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난 '94. 4. 1 제 1차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을 고시한데 이어 제 2차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진흥회에서는 중전업계의 기술개발 과제를 다수 발굴하여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업계의 국산화 개발 대상과제를 '94. 6. 11까지 접수, 심의를 거쳐 6월말 고시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는 바, 업체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전기공업협회(NEMA)와 업무협조 약정체결 합의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미국의 전기공업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전기공업협회(NEMA)와 상호 우호 관계를 정립하고 양국 전기공업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진흥회 任寅柱 상근부회장은 지난 5월 11日 미국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를 방문, 同 협회 Dr. Malcolm 회장과 양단체의 기능 및 역할과 주요업무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국의 전기공업 발전을 위하여 가까운 시일내 양단체의 적절한 내부절차를 거쳐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키로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NEMA와의 업무협조 약정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세계 최대 단일경제 블록권을 형성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중진업계가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 전기공업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점을 감안, 양국간 교류 및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NEMA와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기업의 이 지역 진출이 용이하고 미국전기공업협회를 통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기술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또한, 양 단체간에도 시장조사, 사절단 방문, 전시회 참가등에 서로 협력하고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양국의 전기공업 발전을 위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任 부회장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멕시코 전기공업협회 (Camara Nacional de manufacturas Electricas)도 방문, 앞으로 양국의 전기업계 발전을 위하여 자료와 정보의 교환, 기술협력 등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협력할 것도 합의하였다.

SIEF '94 참가신청 완료

— 5月 26日,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

국내 중전기기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국제경쟁력 제고의 전기가 마련될 「'94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 (SIEF '94)」에 국내외 90여개 업체에서 신청을 마쳐 성황리에 개최될 전망이다.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륙관에서 개최될 전시회에 5월말 현재 국내 60여개 전기관련 업체에서 신청을 마친 것을 비롯 외국 6개국 16개업체 및 한전등 전기관련 단체에서 대거 참가를 신청해와 국내 최초로 전기기기가 총망라 전시되는 명실상부한 국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전시장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제품의 비교전시를 통한 신제품개발의욕 고취, 국내 기술력의 체계적, 종합적 홍보를 통한 대대적인 바이어 유치등 수출증진 및 수입대체 유도,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 및 전기절약 등에 대한 대국민 계도 등을 목적으로 총 7,488㎡의 규모에 발전, 송배전, 변전 및 동력제어등에 관련되는 전기기기 전 품목이 종합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동 전시기간 동안에는 부대행사로 “제1 전기신기술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이 신기술의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비교 평가하고 배울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런점에서 이번 전기 신기술 발표회는 학술 위주의 논문보다는 전기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례 및 국가적인 연구개발 정책등을 주요 발표내용으로 함으로써 시장개방 및 국제화에 대비, 신기술 습득 및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참가업체에 대한 참가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5월 26日 KOEX 본관 3층에서 참가업체에 대한 세부운용요령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참가신청 업체 및 참가의사를 가지고 있는 100여개 업체가 참석, 전시회 구성에 따른 참가업체별 전시장소 배정과 전시회 운영계획, 출품업체에 대한 지원 및 유의사항 등 전시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재까지 신청을 완료한 업체는 다음과 같으며 추후 전시참가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시규모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가문의 및 안내 : 진흥회 국제과 (Tel. 424-4901)〉